

비전문 인력들이 조직위 차지해
영화에 대한 생각보단 자리 보전에 급급했다

15회나 개최했지만 아직도 정체성이 없다
시민들 영화제 모르고 광주시 관리·감독 부실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
라운드테이블 시민 공청회**

관객 중심 요구가 뭔지 잘 살펴야
정치적 해결책은 또 파행을 겪을 뿐

모든걸 허문 상태에서 기초부터 다시 쌓자
미디어아트 도시·문화전당 등 광주 특색 살려야

“영화인·시민·문화단체 손잡고 영화제 살리자”

“광주국제영화제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비전문 인력들이 조직위원회를 차지하면서 영화에 대한 생각보단 자리 보전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니다. 이제부터라도 영화가 무엇인지, 광주에서 개최하는 영화제가 어떤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생각해 아합니다.”

지난 26일 광주시는 지난해 행사 정산서류 제출 미비로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올해 책정된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8월까지 보완된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보조금까지 회수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시 보조금이 예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제가 존폐 기로에 놓인 것이다.

같은날 오후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광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었다.

“벌써 15회나 개최했지만 아직도 정체성이 없다”, “홍보가 부족해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지 아는 시민이 드물다”, “광주시는 그동안 예산만 지원했지 정책이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 등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란 테이블’(이하 모란 테이블)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모란 테이블에는 광주 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영화인협회 등 영화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속으로 풀이가고 있던 광주국제영화제의 문제점은 지난해 10월 조직위 정무이사장이 염모 삼임이사장을 해임하며 외부에 드러났다. 공공 유용과 전횡이 이유였다. 이에 염 삼임이사장은 부당하다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극심한 내부갈등 속에 올해 6월 치렀어야 할 제16회 행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정우영 다큐멘터리 감독은 “광주국제영화제 출범과 경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작부터 뼈격된 인력 구조를 꼽았다. 홍보와 운영 미숙으로 흑평을 받았던 2001년 첫 행사 이후 15년 동안 조직위는 매년 “내년을 기약하겠다”고만 했다는 것이다. 현재도 ‘개혁’, ‘쇄신’ 등 말만 나오지 첫 행사부터 참여했던 비전문 인력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광주국제영화제 문제해결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란 테이블’이 개최한 시민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들이 지금까지도 조직위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정 감독은 “관객 중심 요구가 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책은 또 파행을 겪을 뿐이다”고 경고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준(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무한상상플러스 대표이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다운 국제영화제를 위하여에 대해 발표한 후 “제대로 된 영화가 무엇인지, 뭘 위한 영화제인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잘못을 따지기보단 모든걸 허문 상태에서 기초부터 다시 쌓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아트를 다루고 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을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광주 특색을 살려야한다는 의미다.

이어 유수안 필름에이지 대표는 주제 ‘지역 문화 정책과 영화발전을 위한 제언’ 발표에서 “지역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민·관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지역 영화인들과 시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고 광주극장을 지켜내고 있다”며 “그동안 광주시는 무엇을 했다. 이제는 광주시가 답할 차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시민토론에서도 “올해 행사를 못치러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지역 영화인·시민·문화단체를 망라한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등 각종 의견이 나왔다. 한 참여자는 “오늘 이 자리에 광주시나 조직위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모란 테이블측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2~3차례 공청회를 더 열어 방안과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학동탈·운림탈·지원탈...탈과 무용이 만난다

나빌레라 예술단 ‘광주, 탈무 탈거리’

31일 무등산 자락 서석당 야외무대

‘탈과 무용이 만난다.’
올해 지역특화문화거점 지원 사업에 선정돼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을 중심으로 공연을 준비 중인 나빌레라 예술단(대표 한명선)이 우리 전통 탈과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학동, 지원동, 증심사, 대인사당, 궁동 예술의 거리 등 광주 동구 곳곳을 ‘탈 이야기’로 재구성한 ‘광주, 탈무 탈거리’가 관객들을 만난다.

첫 무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무등산 자락 서석당 및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학동탈, 운림탈, 지원탈-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등산이 광주를 품어 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작품은 ‘동구 발전을 기원하는 당산제’, ‘무등산 정기의 부활-황이 다시 날아오르다’ 등 다섯 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총연출 및 예술감독은 김미숙 조선대 교수가 맡았으며 아트 컴퍼니 원 대표 원광연씨가 대본을 썼다. 올 실내악단이 특별출연하며 한국화가 배준선씨가 한국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원효탈, 증심탈-전통 실내악단 울과 함께하는 탈 놀이’(10월 14일), ‘금남탈, 총장탈-얼쭈 타악과 함께하는 젊음’(10월 28일), ‘대



인시장 탈, 남광주 탈-대중가요와 함께 시민 한마당(11월27일), ‘궁동탈, 동명탈-다양한 공연 예술이 함께하는 난장’(12월 18일) 등이 공연된다. 무료 공연. 문의 010-3629-2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승환·10cm·샘김에 래퍼 ‘제시’까지

2016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공개



‘언니들의 슬램덩크’ 래퍼 제시

광주 사적 공연 일원에서 열리는 도심 속 음악축제 ‘2016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9월3일~4일) 최종 라인업이 공개됐다.

모던록, 팝, 어쿠스틱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3일 ‘Dream Day’에는 기존 발표된 ‘이승환’, ‘10cm’, ‘샘김’ 이외에 ‘가을방학’과 ‘권나무’가 출연을 확정했다.

합합 뮤지션들의 무대인 4일 공연에는 ‘언니들의 슬램덩크’로 인기 상승 중인 래퍼 ‘제시’, 실력과 힘찬코루 ‘비스메이저 (답글로우, 우탄, 단밀스, 녀살, 오디)’, ‘하이라이트 레코즈 (팔로알토, 허클베리피, G2)’가 출연한다.

그밖에 일본 힙크음악의 선두주자 ‘스쿠비 두 Scoobie Do’, 태국 최고의 실력과 밴드 ‘엘로우 팡 Yellow Fang’, 홍콩 맵스록 밴드 ‘지디제이와이비 GDJYB’ 등 아시아 대표 아티스트가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그밖에 피크뮤직 스테이지에서는 인큐베이팅 선정 아티스트 다섯 팀을 비롯한 광주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티켓은 1일권 3만3000원, 2일권 5만5000이며 8월 4일까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피크뮤직 스테이지 및 광주레코드페어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54-3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지사·지국 안내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4년
광주일보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여행구독 220-0550

광주시내(062)	전남(061) · 전북(063)
북구	동부권
동광 264-2012	고흥군 842-2121
문흥 266-1960	곡성군 362-8111
북광주 525-3761	구례군 782-4696
신안 222-8171	광양시 792-8111
양산 571-7658	보성군 852-9646
양치 266-7601	순천시 746-8111
오봉 522-7752	여수시 692-0997
우산 512-8116	중부권
중흥 654-2985	나주시 335-5501
남광 222-9440	강진군 434-6830
남동 222-9054	담양군 383-8116
동동 225-6001	영암군 471-1717
중동 222-1896	장성군 394-0400
중장 222-8171	장흥군 863-8822
남부 652-0175	화순군 374-4423
남백 651-1833	서부권
봉선 675-5530	목포시 276-9200
하월 675-6605	무안군 452-8535
진월 671-7276	신안군 278-8111
광천 382-5788	영광군 351-1004
상무 372-2352	완도군 554-6677
서광주 369-0583	진도군 543-0100
운천 376-7153	함평군 324-8111
치평 376-6511	해남군 537-6767
중암 803-0311	전북권
화정 369-0583	군산시 467-2500
월곡 941-9174	정읍시 531-5544
천단 973-2900	순창군 652-1920
하남 959-1500	남원시 626-1601
광산 944-0444	고창군 010-2815-2267
	부안군 582-8118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충류 박물관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